

News

입주 코앞인데 어디서 돈 구하나...국민은행 지점별로 대출 20억 제한

매일경제

하나은행, 6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당분간 일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한 대출 중단 발표... 연말까지 중단 예정
KB국민은행은 10월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겠다고 발표... 가계대출 관리 증가세에 따라 연말까지 동 관리 기조 유지할 방침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보완 대책 이달중순 내놓겠다"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10월 중순에 실수요자 중심 가계대출 보완 대책 내놓겠다고 언급... 총량관리를 하면서 부문별로도 보는 중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5~6% 목표는 지난 4월 부터 나온 이야기라 행정편의주의는 아니라고 언급...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 설명

우리금융지주,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이유는?

머니S

우리금융지주,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달된 2,000억원은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
6월말 기준 BIS총자기자본 28조 8,601억원에서 2,000억원 증가해 13.75%에서 13.85%로 0.1%p 상승 예상

오늘 금감원 국감...DLF 패소·머지포인트 사태 쟁점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소송 패소 관련 질의 오갈 예정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 관련해서 질책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 사업자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져 8월 중순 경찰 수사 의뢰한 점 지적 예상

고승범 "삼성생명 징계,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다"

YTN

금융위원회,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징계 의결을 10개월 가량 내리지 않고 있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결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해명
여러 쟁점을 보는 중이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언급...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관경고를 의결했으나 금융위는 아직 의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보험사 CEO들 "빅테크의 보험시장 파급력은 '제한적'"

비즈니스위치

보험사 CEO들, 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보험시장 진출 여파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점진적인 금리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전통적인 보험 영역에서 빅테크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코로나19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1~2년 내에 종식될 것으로 전망

당국 구두개입 효과? ...증권사 신용용자 연일 감소

뉴시스

지난 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4조 5,837억원으로 집계... 11거래일 연속으로 감소하는 중... 동 기간동안 1조 703억원 감소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둔한 것은 빚투증가가 증권사 건전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증시가 하락 중이라 담보 가치가 떨어져 반대매매가 계속 모니터링 필요

한국투자·KTB투자증권, 해외법인 성장세 두각

CEO스코어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해외법인 수가 15곳으로 조사대상 증권사 중 세번째로 많아...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377억 6,600만원으로 기록
KTB투자증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9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자본 중심으로 자산 축적하며 중장기 사업 확장하려는 의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